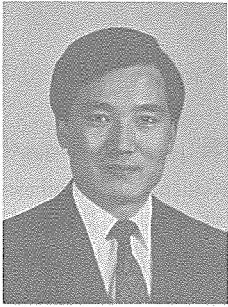


## 미국 교정학회 창립91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다녀와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교정과  
부교수 박 영 철

금년 5월 11일부터 15일 까지 닷새동안 미국 서북부의 아름다운 도시인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개최되었던 미국 교정학회(American Association of Orthodontists)는 그 규모나 내용으로 보아서 세계교정학회라고 하여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을 명성과 위용을 함께 과시하고 있었다.

개최국인 미국은 물론이며, 유럽 및 남미의 여러나라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한국(약 60명 참가)을 포함하여 일본과 대만 등 세계 각국에서 4천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하였다.

미국 교정학회 창립 91주년을 기념하는 이번대회는 다가오는 21세기를 바라보며 교정학이 나아가야 할 미래상을 제시하고 나날이 변모해가는 현대문명속에서 소홀히 다루기 쉬운 “윤리(Ethics)”를 주제로 선정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인간을 존중하는 자세에서 우리의 학문이 시작되어야 한다는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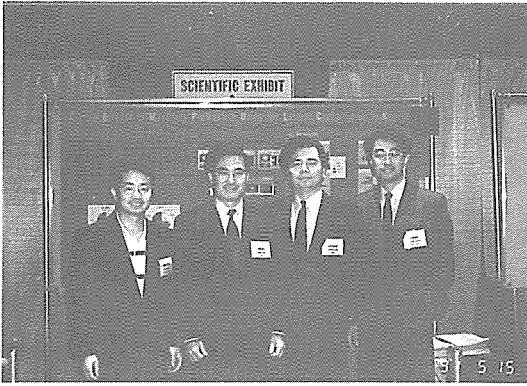
이번학회의 학술분야의 특징은 악관절질환의 진단 및 치료, 악교정수술, 심미적 보철 및 치주 치료를 통한 성인교정치료 등에

관한것으로서 21세기를 향한 교정학의 영역이 보다 넓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우리가 도전해야 할 분야가 더 한층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예고해 주고 있었다.

발표된 연제의 양과 질에서도 세계적인 학회답게 39명의 저명한 연자들의 특별강연과 Panel discussion, 그리고 113개의 table clinic, 150개의 sound table discussion과 20연제의 poster전시회 및 30편의 연구논문발표회 등으로 이루어졌고 그밖에도 치료중례 발표장 및 작년도 학회의 강연을 다시 들을 수 있는 시청각 교육등이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둘째날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학술강연은 JOHN MERSHON을 기념하여 강연한 Dr. Lloyd Pearson과 Jacob SaLzmann을 기념하여 강연한 Dr. William Proffit의 강의를 서두로 서서히 열기를 더해가기 시작하였다.

특히 Dr. Pearson은 전치부 개교(Anterior Openbite)환자를 수술에 의존하지않고 구치부를 Intrusion시켜서 치료하는 방법에



●연세대학교 교정학교실의 연구가 발표된 Poster전시장에서 (좌로부터 이원유 교수, 필자, 백형선교수, 황충주교수)



●미국 코네티컷 대학의 교정과 과장인 Dr. Burstone과 함께

관하여 발표하였고 North Carolina대학의 교정과 과장인 Dr. Proffit은 골격형 제II급 부정교합 환자의 적절한 치료시기의 선택과 증례별 문제점에 관하여 해박한 지식을 펼쳐나갔다.

세째날 강연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악관절질환(T.M.J diseases)의 진단과 치료에 관한 내용이 관심을 끌었는데, Washington대학의 Dr. Howard등은 TMJ disorder(TMD)와 facial pain의 원인과 진단에 관하여 발표하였고 유명한 Dr. T.M. Graber도 교정치료시의 발치와 악관절과의 관계에 관하여 정열적으로 설명하여 노익장을 과시하였다.

또한 Florida대학의 구강악안면외과 과장인 Dr. Dolwick은 TMD환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하여 언급하였는데 특히 arthrotomy와 arthroscopy의 차이 및 악교정 수술후 고정방법에 따른 예후에 관하여 발표하였고 이어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TMD 및 OCCLUS이란 저서의 저자인

Kentucky대학의 Dr. Okeson은 Disc-interfere disorder와 저작근의 disorder의 비외과적 치료방법에 관하여 주옥같은 강연을 하였다.

오후의 강연중에서는 Michigan대학의 Dr. McNamara의 혼합치열기에서 교정치료와 Functional appliance를 이용한 치료가 주목을 받았다. 특히 악궁의 크기가 좁은 경우에는 제 I 급 부정교합 환자에서도 상악골 급속확장법(Rapid Palatal Expansion)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제II급 부정교합은 혼합치열기에서는 주로 Fränkel appliance(FR II)와 Bionator를 사용하고 영구치열에서는 Herbst appliance와 Jasper Jumper를 사용하였다. 또한 제 III급 부정교합에서는 Fränkel appliance(FR III)로서 악궁의 관계를 개선시킨후에 RPE와 함께 Face mask를 사용하였는데, 특히 Face mask를 사용하기전에 상악골 급속확장장치(RPE)의 screw를 8번 정도 돌려서 Craniomaxillary suture를 약하게 만든후에 Face mask를 사용하면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네째날의 panel discussion에서는 Dr. Kokich, Dr. Mathews등의 보철 및 치주적인문제를 동반한 교정환자의 최신 치료방법이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되었는데, 성인환자의 교정치료비율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미루어서 치주, 보존, 보철, 구강외과 등 인접과의와 긴밀한 협조와 총체적인 치료개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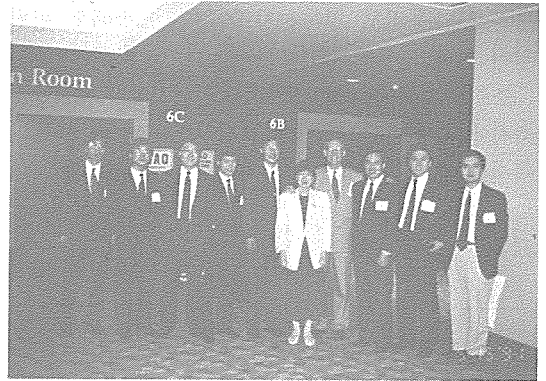
마지막날에는 UCSF의 교정과 교수인 Dr. Boyd가 치주환자의 교정치료시의 주의사항에 관하여 강연하였고 Dr. Shapiro은 Openbite의 외과적 치료와 교정치료후의 안정성(stability)의 비교에 관한 발표에서 교정치료의 중요성을 간파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학회중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미국교정학회(A.A.O)자체의 연구비로 악관절(TMJ)에 관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연구한 7개의 연재가 발표되었다. 필자가 2년 전에 Anaheim Convention Center

...그동안은 학회참가에만 의의를 갖었었으나 금년에는 연세치대 교정학교실에서 Poster전시회와 연구논문 발표회에 직접 참여하여 우리의 연구결과를 미국교정학회에서 직접 발표하는 영광을 가졌다. 백형선교수, 황충주교수, 고성휘선생은 상악골 급속확장과 Face mask를 이용한 치료의 연구결과에 관하여 poster로서 발표하였고 유영규 교수님, 김영준선생과 필자의 공동연구인 “제 2 대구치 발치후의 제 3 대구치 봉출에 관한 누년적 연구”결과에 관하여 필자가 발표하였다....



● 한국을 대표하여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발표장 앞에서 기념 촬영



● Straight wire technic으로 유명한 Dr. Alexander와 함께한 한국측 참가자들

에서 개최된 미국교정학회에 참석하였을 때에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날수 있는 악관절의 문제때문에 많은 임상인들이 신경을 쓰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미국 교정학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7개의 대학에 “교정치료와 악관절질환”에 관한 연구비를 제공하고 2년후인 금년에 그 결과가 발표되는 것을 볼때에 우리도 교정학회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갖고 앞으로 일어날 여러가지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줄로 생각되었다.

악관절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교정치료와 TMJ disorder의 관계,

교정치료중 소구치발치의 TMJ problem과의 관계 및 TMJ의 방사선 진단시의 문제등 그동안 세간의 논란과 의구성을 갖고있던 문제는 어느정도 규명되었다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연구결과를 미루어 볼때에 소구치발치나 교정치료자체는 TMJ problem과 별로 관계가 없는것으로 집약되었으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TMJ의 진단에는 Tomogram이나 Transcranial X-ray로서 가능하며 MRI는 가격이 너무 비싼것에 비하여 그 효용성이 적은것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Washington대학의 교수인 Dr. Little, shapiro등은 치료

후 30년이 넘는 증례의 누년적연구에 관한 보고를 하였는데 수십년동안 자료를 보관하고 정리하는 장기적인 연구자세와 꾸준한 노력등은 모든면에 성급한 우리들이 본 받아야 할 점이라 생각한다.

그나마 그동안은 학회참가에만 의의를 갖었었으나 금년에는 연세치대 교정학교실에서 Poster전시회와 연구논문 발표회에 직접 참여하여 우리의 연구결과를 미국교정학회에서 직접 발표하는 영광을 가졌다. 백형선교수, 황충주교수, 고성휘선생은 상악골 급속확장과 Face mask를 이용한 치료의 연구결과에 관하여

poster로서 발표하였고 유영규교수님, 김영준선생과 필자의 공동 연구인 “제 2 대구치 발치후의 제 3 대구치 봉출에 관한 누년적 연구” 결과에 관하여 필자가 발표하였다.

비록 작은 변화이지만 앞으로 우리치과교정학이 세계무대를 향한 첫 교두보를 마련하였다는데에 의의를 두고 싶고 세계적인 수준과 견주어 보더라도 임상연구분야는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세계각국의 300여개의 회사에서 참가한 기자재 전시장에서는 하루종일 다녀도 제대로

구경을 못할 정도로 넓은 장소에 다양한 상품과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있었다. 특히 새로운 기술로서 개발된 computer를 이용한 진단 program들이 인기를 끌었는데 종전의 cephalometric 진단 program에 Imaging System을 첨가하여 치료전후의 환자의 치아의 상태뿐아니라 연조직의 변화도 화면에서 직접 그려내는 방법이 다양하게 소개되었으며 그 밖에도 병원 실내 design 및 환자관리 program이 눈길을 끌었고 Straight wire technic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형상기억합금(niti wire)들이 다양하게 소개되었는

데 특히 turbo wire라고 해서 여러가닥의 niti wire를 직육각형의 형태로 만든 niti rectangular wire는 장차 1개의 wire로서 성공적으로 교정치료를 마칠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금년도 미국교정학회는 다가오는 21세기를 바라보며, 교정학의 밝은 미래를 구상하고 우리들이 도전해야 할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교정학을 아끼고 사랑하는 전세계의 모든 학자들이 함께 생각하며, 창조하고, 즐기는 축제의 한마당으로서 참가자 모두의 가슴에 깊이 기억될 것이다.

## 新 刊 案 內

현재 미국 Tufts대학교 치과대학 교정과 임상교수인 김영호교수의 4편의 논문의 국역과 국내발표논문 2편이 서울치대 장영일 교수의 편집으로 한데 묶여져 책으로 간행되었다.

서울치과대학 교정과와 양원식교수는 책의 발간에 대하여 『지난 20년동안 Edgewise Mechanism에 기초한 Multiloop Edgewise Arch Wire Technique를 창안하고 개량을 거듭하여 명실공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MEAW Mechanism의 확립을 이루게 된 것』으로 높이 평가하고 이 훌륭한 기법이 널리 보급되어 우리나라의 교정학의 발전과 교정환자진료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의 글을 담고 있다.

저 자 : 김 영 호  
 편 집 : 장 영 일  
 인 쇄 : 지성출판사

Multiloop Edgewise Archwire Technique

MEAW Techniqe and Research Foundation 韓國 1988